

VIDO Monthly Report

Jan.

1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새로운 미디어아트 콜렉터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1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I Media Art Trend

- 1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 '발전하는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

I 'VIDO's News'

- 미래에셋 x 류재춘

I 'VIDO's Artist'

'Namecode'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1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1) 챗 GPT가 가져올 영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OpenAI에서 제작한 챗봇(Chatbot)인 챗 GPT(Chat GPT)가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교육, 예술 뿐만 아니라 여러 담론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문 보기

발전하는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등장은 미디어라는 용어가 단순히 친숙한 것이 아닌 체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지와 엄지 손가락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체화된 미디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지만, 문법과 예절은 체득 후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미디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공급원을 통해 사람들은 접근장벽 없이 미디어 환경에 노출됩니다. 분별되지 않은 정보들은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체득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더 나은 정보를 만들도록 하는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에 나온 화두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입니다. 단순히 미디어를 잘 이용하고 다른 것에서 더 나아가, 얻은 정보들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미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1

더 알아보기 2

Media Art Trend

VIDEO's News

'미래에셋 x 류재춘'



미래에셋 연말행사 전경



지난달 미래에셋이 주최한 연말행사에서 류재춘 화백의 작업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멈춰있던 한국화 속 경치들은 살아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영상화되었습니다. 대표작인 <월하>를 비롯한 다양한 수묵산수화들을 선보였고, 이는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더욱 빛나도록 했습니다.

류재춘, <FULL MOON>, 2022, 한지에 수묵담채

디스플레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미디어아트를 위한 전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파사드, 기업 사옥이 아닌 주변 곳곳에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류재춘, <월하>, 2022, 한지에 수묵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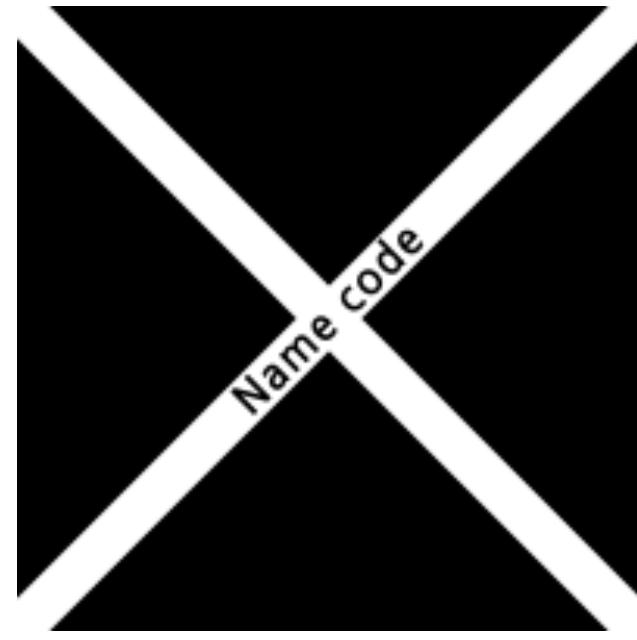
류재춘, <->, 2022, 한지에 수묵담채

VIDEO안의 작품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영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화 된 회화와 인стал레이션들도 업로드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vido.gallery를 방문해보세요!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Namecode'



VIDO에서 소개해드릴 미디어 아티스트는 'Namecode'입니다. 설치, 영상,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Namecode'는 한 명의 작가가 아닌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팀입니다.

Q. 네임코드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네임코드는 무엇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이름들이 만나 코드(code)가 일치하면 그게 바로 네임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 구성원으로는 x와 y 그리고 z가 있는데요. x,y는 저(y)를 비롯하여 네임코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z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인연이자 협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TEAM

X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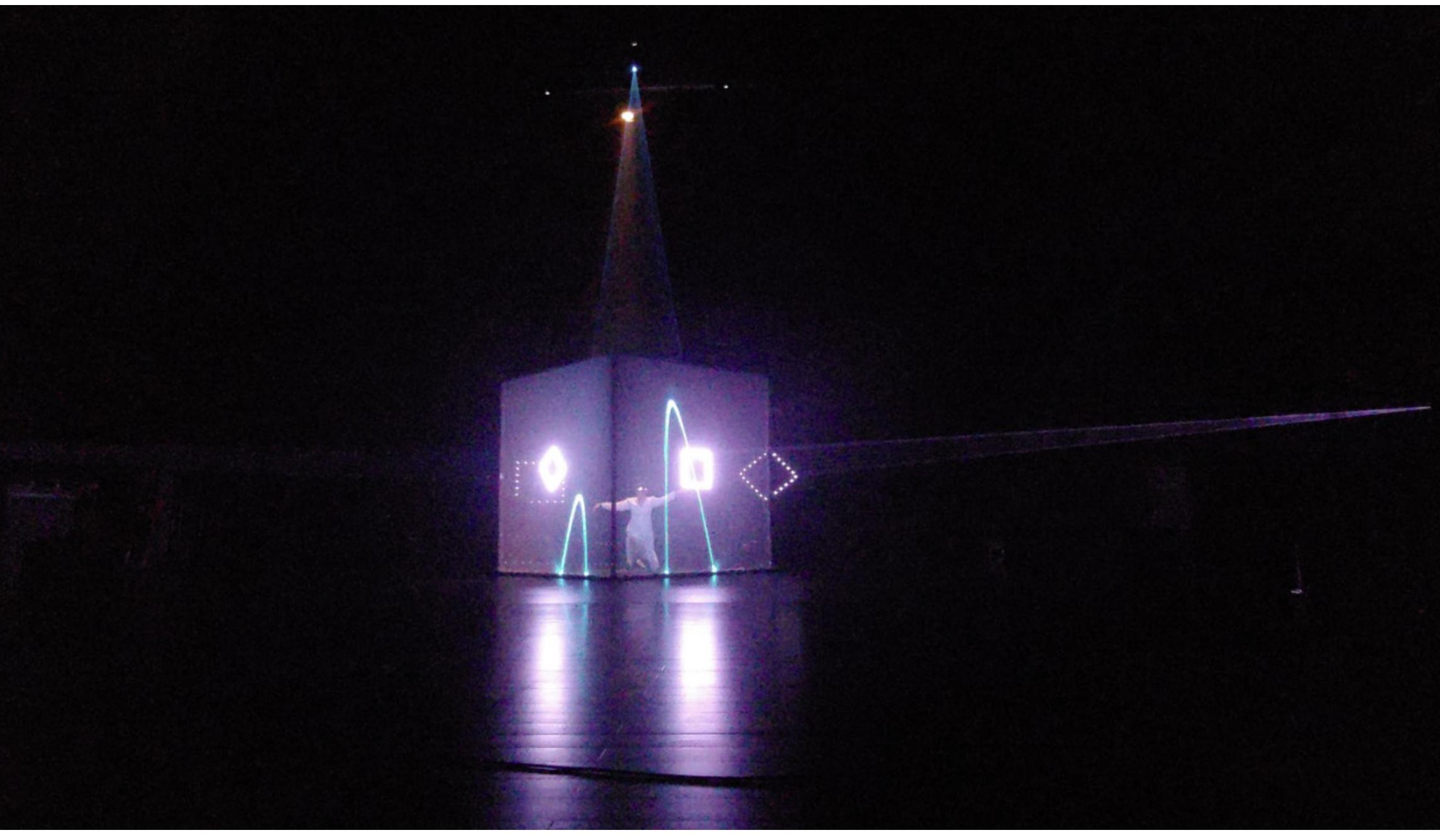
z

Q. 어떻게 보면 Namecode는 하나의 것으로 좁혀진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일까요? 확장하더라도 그려내고 있는 하나의 미래 모습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체나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심볼인 할 수 있는 '큐브(Cube)' 안에서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큐브는 네임코드에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세상이자 벗어날 수 없는 곳이죠.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이 공간도 결국은 큐브 안에 있는 것이구요. 틀이 존재하지 않는 네임코드의 작업은 주제와 매체에 상관없이 이 공간과 경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어요.



Namecode, <Nature Gate>, 2022, 혼합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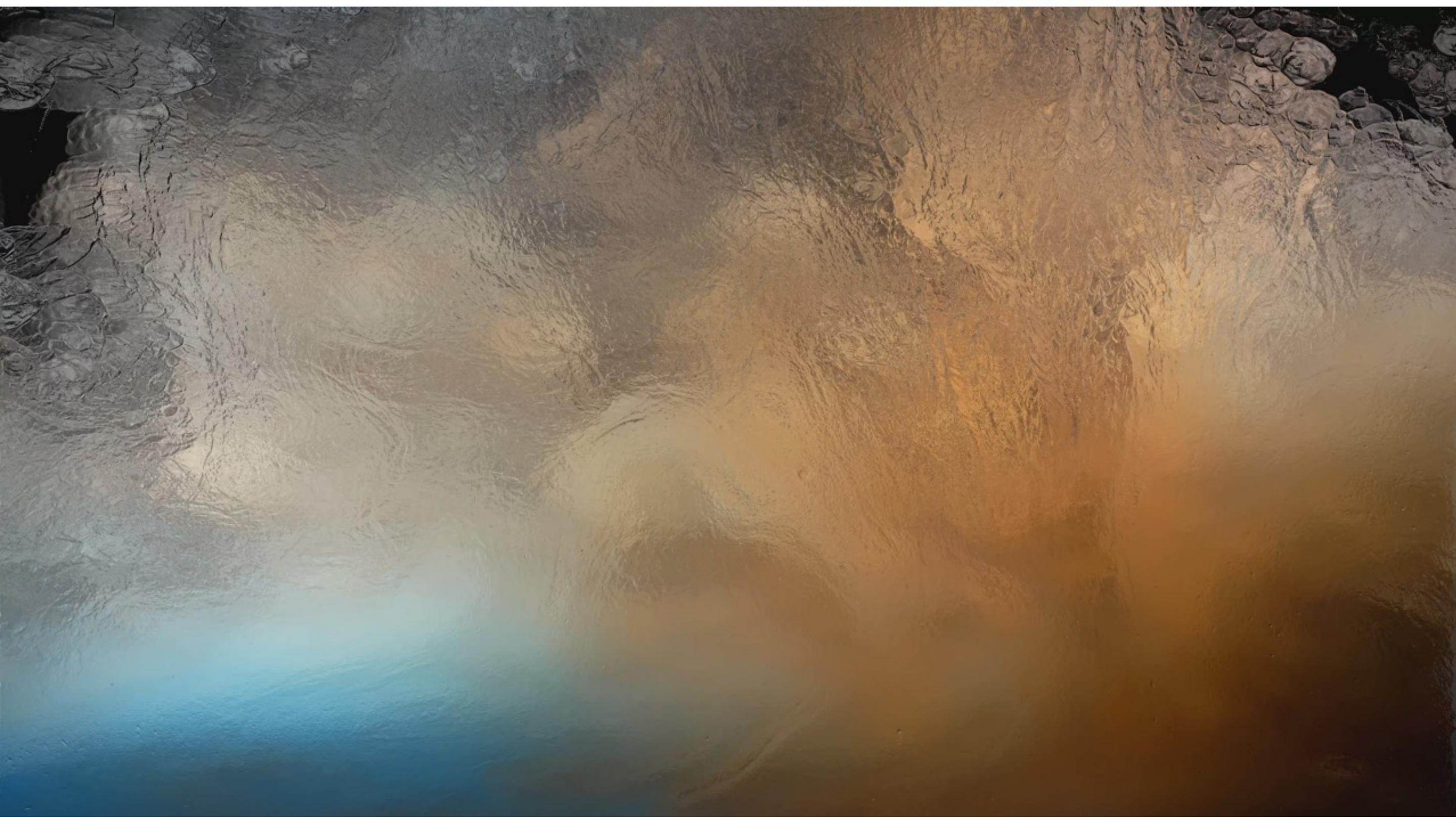
Namecode, <Nature Gate>, 2022, 혼합 매체

Q. 최근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전부터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어요. 그러다보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더 넓은 범위의 '자연'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큐브 바깥의 모습 즉, 우리가 쉬이 볼 수 없는 자연의 수많은 장면들을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희는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세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Namecode, <Entropy of nature-3(wave)>, 2022, 단채널 영상



Namecode, <Entropy of nature-2>, 2022, 단채널 영상

Q. Namecode가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는 무엇일까요?

A.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아트는 다방면에서 경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기술이나 프로그램, 나아가 표현방식까지 말이죠. 미디어아트라고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요. 3D, 2D 툴로 만들어지거나 맵핑과 디스플레이 등 처럼요. 저희는 이러한 경계에서 항상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매체들로 새로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미디어가 갖는 기술적인 우열과 묘사가 아닌, 메시지가 갖고 있는 힘을 경계가 없는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임코드(Namecode)의 작품을 [video.gallery](#)에서 만나보세요.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